

2023.5.

VOL. **335**

MAY **5**

열린신문

Yullin Newsletter

(대한예수교장로회) 열린교회는 1993년 12월 12일, 방배2동의 작은 지하실에서 설립되어 1998년 10월에 방배동 예배당으로, 2002년 4월에 평촌 현 예배당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열린교회의 비전은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예배, 참된 목양, 체계적인 양육과 훈련을 통해 참된 신자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열린교회의 이름은 요한계시록 3장 7절~8절에 근거한 것으로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향하여 하늘을 열어 주신 교회"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Yullin Newsletter>는 8면으로 이루어졌으며, 열린교회 홈페이지의 <열린신문> 코너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열린교회는 본 신문을 매개로 외부성경공부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를 발견하신 분은 1661-4372로 제보 바랍니다.

📖 말씀술루선

신앙의 사각지대

성경의 에베소서는 로마에서 가택 연금 상태에 있던 바울이 로마의 아시아 속주에 속한 부유한 항구 도시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로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진리, 교회의 통일성과 함께 가정의 질서에 대해서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 옛날의 사회가 어땠는지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정과 가족 구성원의 관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을 경외하는 참된 신앙이 없는 속에서 살아가는 사회의 가치관들을 우리의 신앙생활과 조화시켜보려고 시도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우리의 삶의 원리를 성경 중심으로 재건축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지으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고(창 1:31) 평가하신 것은, 피조물들이 놓여진 자리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대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의도하시지 않는 자리에 놓여있어 달이 떠야 하는데 해가 뜨고 물이 바다로 모여야 하는데 산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의도에 반하여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고 선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 기본적인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질서 속에서 우등하게 매겨진 덕목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며(엡 5:22),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5:28). 또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며,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6:1~4). 이 덕목이 가장 우세한 덕목입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에서 대부분의 문제는 우세한 덕목이 없어져 버리거나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것에서 기인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떠난 후에 디모데가 목회하던 교회입니다(딤후 1:3). 그런 거장들이 목회했음에도 이런 기본적인 이야기를 들어야 할 필요가 있었으니 가정의 영역이 영적인 삶에 얼마나 심각한 사각지대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에 맞추어 살아가기 어려운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더 다듬어지고 거룩한 존재가 되기를 사모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세상이 변하고 세월이 흘러가도 하나님께서는 아내와 남편에게, 부모와 자녀에게 각기 이러한 명령을 주심으로 쓰러져 가는 이 시대의 가정을 바르게 세우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

〈가정을 위하여I〉 설교시리즈 중에서

(본 시리즈는 아내들이여/남편들이여/자녀들이여/아비들이여/내 아들이 내 아들이 5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열린교회 발행인 김남준 편집인 진광희 편집부 열린교회행정센터 편집주간 류요한 디자인 디자인집 (02) 521-1474

주소 14059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39번길 31 전화 1661-4372 팩스 (031)421-9411 e-mail yullin@yullin.org URL www.yullin.org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

미움의 죄를 끊으라



김남준 담임목사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골 3:13-14)

옛말에 원한은 돌에 새기고, 은혜는 흐르는 물에 새긴다고 하였습니다. 고마운 일은 쉽게 잊어버려도, 가슴 아팠던 원한은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임을 말해줍니다.

미움은 모든 선으로부터 돌이키게 합니다. 선에서 돌이키면 악인데, 악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움은 우리를 진정한 행복에 이르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사슬처럼 얽힌 미움의 죄를 끊을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구체적인 교훈 세 가지를 가르쳐줍니다.

용납하라

첫째로, 서로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불만’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비난’, ‘불편’, ‘다툼’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서로 용납하여”는 ‘서로 견디며’, ‘서로 참으며’의 의미입니다. ‘참는다’는 것은 더 높은 목적으로 인해 어떤 충동이나 감정 등을 억누르거나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생활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것은 그와의 사랑의 관계를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를 향한 비난과 불평을 참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고, 인간으로서의 불완전함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 함께 살아가는데 괴로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누구에게도 만족을 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서로를 괴롭게 하는 일이 당연히 일어납니다. 불신과 다툼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근본적인 진리에 대한 것이 아

니라면, 나와 다른 형제를 용납하고, 심지어 자신에게 나쁘게 행하는 형제까지도 용납해야 합니다. 두 가지의 더 큰 목표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 때문입니다. 인간의 모든 비참은 하나님 사랑에서 떠난 것에 있습니다. 사랑이 기쁘고 좋은 걸 알지만 올바르게 사랑할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생명의 힘으로 미워할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사랑하며 사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는 나아가 모든 인류가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요 17:23).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의 욕망대로 살려고 하는 자신을 억제하며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더군다나 죄인 취급을 받으며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것을 참으셨습니다. 당신이 참으심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사랑의 관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히 12:2).

하나님 사랑을 맞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참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깊이는 사랑의 깊이이고, 사랑의 깊이는 인내의 깊이입니다.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인내합니다. 덜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그 관계를 깨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는 오래 참는 사람이 못난 사람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오래 참는 그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아십니다.

돌아보면 하나님 사랑으로 더 인내했다라면 더 아름답게 되었을 관계들을 얼마나 많이 깨뜨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당신께서 우리를 용납하신 것을 본받아 다른 사람들을 잘 견디고 참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용서하라

둘째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형제를 용서해야 하지만, 내일은 내가 용서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불완전한 인간의 삶입니다. 용서는 자신에게 죄지은 자의 잘못을 꾸짖지 않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멀리 떠난 인간은 본성적으로 사랑하기보다 미워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미움은 학습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워하는 것은 본성에 순응하는 것이지만 올바르게 사랑하는 것은 본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누구든지 새 본성이 주어져야 올바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을 쉽게 미워하고 좀처럼 사랑하지 않습니다. 쉽게 용서하지도 않습니다. 마음 깊이 미워합니다. 마음속으로 괴롭히고, 자신에게 한 것처럼 고통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하도록 명령하십니다. 무엇 때문일

“

행복 누림을 방해하는 미움의 죄는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끊을 수 있어

그리스도를 통해 부여받은 생명으로 자신의 욕망을 억제하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에 참여해야

신앙의 깊이는 사랑의 깊이
사랑의 깊이는 인내의 깊이

”

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오묘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얼핏 보면 자신도 대견할 정도로 정돈된 삶을 살고, 제법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나는 듯합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잘못을 행하는 형제에게 분노하고, 마음속으로 그를 미워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접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자책감이 생겨납니다. 머릿속으로는 용서해야 함을 알아도 마음으로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더욱이 그를 위한 기도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럴듯한 겉모습과는 달리, 자기 사랑에 뿌리박고 있는 내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자기에게 죄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그 과정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 큰 아픔과 희생을 동반하는지를 뻗속 깊이 체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은 우리의 죄 때문에 자기 몸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용서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그 사랑 때문에 형제를 용서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는 막힌 담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에 오르지 못하고 떨어지며, 진리의 말씀은 귀를 즐겁게 할지 언정 여러분을 새 사람으로 만들지는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라

셋째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용서를 통해 사랑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통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 사랑을 온 세상에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 모든 것들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하였을 때 이 모든 것들은 12절에서 언급된 아름다운 덕들입니다,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 모든 덕을 단단히 결합시켜서 흠이 없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람이 본성적으로 사람들을 가엾게 여긴다면 그는 공허히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본성적으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라면 자비를 베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온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공허히 여길 때, 자비를 베풀 때, 겸손해질 때, 온유할 때, 오래 참을 때 그 사랑 안에서 본성적인 덕들은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맺는말

미움을 버리십시오.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바라십시오. 사람을 용서하는 고통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성령 안에서의 기쁨은 그것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모든 미움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사랑 받는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

☎ 담임목사 동정

- 5.6. 유아세례식
- 5.7. 구역장강의
- 5.8.~20. 미국 방문(칼빈-트리니티 신학교 섬김의날)

📻 라디오 설교방송

- 서울기독교방송(FM 98.1MHz)
금요일 오후 9시 30분 '라디오 강단'
- 서울극동방송(FM 106.9MHz)
금요일 오후 3시 45분 '오후의 기쁨'
- 대전극동방송(FM 93.3MHz)
주일 오후 4시 '여호와와 나의 목자'
- 포항극동방송(FM 90.3MHz)
월요일 오전 6시 30분 '오늘의 양식'
- 울산 극동방송(FM 107.3MHz)
목요일 오전 6시 '참된 삶을 향하여'
- 창원극동방송(FM 92.5MHz)
화요일 오전 6시 30분 '오직 복음으로'
- 전북극동방송(FM 91.1MHz)
월요일 오전 6시 30분 '세상을 향한 한주의 시작'
- 전남극동방송(FM 97.5MHz)
금요일 오전 10시30분 '은혜의 강가로'

🌐 인터넷 설교방송

- 극동방송(대전, 포항, 울산, 창원) <http://www.febc.net>

농어촌목회자부부세미나 후기

'샘이 솟아나는' 세미나



김종현 목사
역둔교회



● **살롬! 강원도 삼척 산골에서 19년째 목회하고 있는 김종현 목사입니다.** 세상에서는 보통 어떤 분야에서 오래 경력을 쌓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며 존중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도 자랑과 존중의 기본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것은 믿음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눈에 띄는 열매가 없는 19년의 세월은 자랑일 수 없는 시간입니다.

● **제가 처음 시골에 오기 전에 시골 목회에 지원하지 않는 목회자들을 볼 때 제 나름의 거룩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사역할 곳을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것은 종이 아닌 주인의 마음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은 목회자로서 본질적 결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중심에는 야망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와서 3년이 지나지 않아 시골 목회를 오지도 않고 와서도 금방 떠나는 것이 야망일 수도 있었지만, 자신의 무능함이 폭로되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의 연약함일 수 있겠다고 한편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 **많은 농어촌교회는 재정적 자립도 되지 않고, 일꾼도 목회자 부부와 한두 명의 직분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물질적 후원뿐만 아니라 여러 도시교회의 여름사역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몇 년 전 노희의 아는 목사님을 통해 열린교회 아웃리치 사역을 소개받고, 그 사역의 한 과정으로서 농어촌 목회자 부부 세미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로 세 번째 참석입니다. 참석할 때마다 열린교회가 농어촌교회 목회자 부부를 섬기려는 진심을 보게 됩니다.

● **첫날 등록부터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보지 못했던 분들을 만나 반가웠습니다.** 개회 예배 때 김남준 목사님을 통해 선포된 예레미야의 전하지 않으면 건드릴 수 없는 불붙은 마음이 바로 내가 잃어버린 마음임을 확인하는 시

간이었습니 다. 그 불붙은 마음은 코로나나 또 다른 외적 환경이 꺾을 수 없는 마음입니다. 세미나를 통해 그런 분들을 만났습니 다. 신황중앙교회 조형민 목사님, 옥토성결교회 최인식 목사님, '현대종교' 탁지원 소장님, 그리고 열린교회에서 만난 여러 성도님이십니다.

● **시골교회 현장 사례 발표로 단에 오른 조형민 목사님은 어떻게 시골교회에서 목회자가 마을에 녹아들고 주일학교에서 장년 사역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모범사례였습니 다.** 그 진심과 목회적 몸부림이 도시교회의 사역 후원을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사역의 열매로 바꾸는 가장 중요한 사역의 기술 아닌 기술이었습니 다.

● **옥토성결교회의 최인식 목사님은 중요한 것은 '처지가 아니라 의지'라고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그룹홈 '창조의 집'의 이름처럼 참으로 창조적인 목회를 하고 계신다는 감동을 받았습니 다. 그룹홈 아이들을 위한 교회 개척, 그리고 그 아이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가게를 열고자 하는 꿈, 그 모든 것이 바로 '처지가 아니라 의지'가 중요하다고 삶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 다. 그 의지는 목사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 사랑의 의지'처럼 보였습니 다.

● **'현대종교'의 탁지원 소장님의 활동을 통해 우리가 싸우고 있는 싸움이 얼마나 중요한 영적 싸움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 다.** 오래전에도 듣고 마음을 울렸던 '진짜가 있으니 가짜가 있는 것입니다'라는 외침 속에 우리를 통해 정말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 질문하게 되었고, 그 치열한 싸움에 작은 보탬이라도 되고 싶어 현대종교를 정기구독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작은 격려들이 큰 힘이 됨을 시골 사역을 통해 배웠기 때문입니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난 '불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은 다름 아닌 열린교회의 전도팀 분들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꺾이지 않는 불붙은 마음으로 전도사역을 확대해 나가고 여전히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는 전도팀 분들의 모습에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 다. 지역전도 담당이신 권경철 목사님의 강의를 통해 모두가 같은 유형의 전도자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유형이 조화롭게 전도의



현장을 풍성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크게 공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열린교회 아웃리치 사역이 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도 고백하게 됩니다.

● **제가 '세미나'는 때때로 '샘이 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나만 빼놓고 다 잘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부족하고 어리석은 마음을 여러 진실한 사역자들의 땀을 흘린 고백을 통해 제 영혼에 '샘이 솟아나는'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 **부족한 저를 첫 새벽기도 인도자로 세웠을 때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과 어떤 말씀을 나누어야 하나 고민하다가 최근에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피할 길'은 도대체 쉽게 동의되지 않는 피할 길이었습니다. 과연 그 길이 내게 피할 길이었나 하나님께 되물을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13장 17-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아닌 '홍해의 광야 길'로 인도하십니다.

● **인간적으로는 결코 '홍해의 광야 길'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보다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람이 보시기에 좋은 길이 아닌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길로, 바로 그 길이 '피할 길'임을 이야기하십니다. 이 길은 농어촌 목회자들에게만 주어진 길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임을 나누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 가운데 격려하고 도움을 주고자 초대해 주신 열린교회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5월에 있을 아웃리치 사역을 기도하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

" 열린교회 아웃리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한상구 목사 (강원도 정선, 용산교회)

2018년부터 열린교회와 연결되어서 2019년까지 1년 동안 같이 했었는데요. 큰 도전이 되었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3년을 같이 못 했었죠. 올해 4년째인데 코로나 기간에 정말 어떻게 보면 마치 방전이 된 것 같아요. 시동을 걸고 나가야 하는데 힘이 없는 걸어주지 않는, 스타트해야 되는데 그걸 해주지 못한... 그래서 열린교회 아웃리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힘을 얻고 일어서서 나가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곳 지역에 있는 분들도 또 새로운 분들을 통해서 또 복음을 듣고 도전받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 함께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문 목사 (강원도 삼척, 추동교회)

안녕하세요. 추동교회 27년째 사역하고 있는 이종문 목사입니다. 제가 추동교회에 와서 27년 동안 사역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두 가지 일을 먼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추동교회 성도들을 만난 것이 저에게는 가장 행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열린교회 아웃리치팀을 만난 것이 두 번째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코로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해체됨으로 다시 한번 사역을 준비한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

고 하나님의 축복이었는데 이번 사역도 그런 차원에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지역의 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것이 지역의 교회를 섬기고 지역을 섬기는 목회자 입장에서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열린교회가 있기 때문에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 사역을 통해서 반드시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이번 사역을 통해서 그들 마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열린교회의 사역팀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조형민 목사 (전남 광양, 신황중앙교회)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광양에 있는 신황중앙교회의 조형민 목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시골교회 전도의 문이 많이 닫혀 있고, 교회의 분위기도 많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번 5월 27일부터 있을 열린교회 아웃리치를 통하여서 이 지역의 전도축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고 저희들이 계속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열린교회와 함께 연합하여서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십자가사경회 취재

서럽도록 하늘이 푸르른 날에는



봄비-

유난히 산불 소식이 잦은 봄이다. 촉촉해야 할 봄에, 온 나라가 바짝 마른 계절을 마주해야 했다. 농부만 하늘을 바라본 게 아니라. 미세먼지로 뒤덮인 도시의 하늘과 뿌영게 날리는 흙먼지를 바라보는 누구라도 봄비를 애타게 기다렸을 것이다. 그 바람을 안고, 고난주간 새벽 십자가사경회가 시작되었다. ‘시험과 기도’, ‘고난을 이긴 기도’, ‘말씀이 생각날 때’라는 제목으로 3일 동안 진행되었다. 그렇게 4월 3일부터 5일까지 이어진 사경회 그리고 때마침 봄비가 시작되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 즉 간절히 기도하며 깨어있는 자는 세상에서 올 일이 적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물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이는 예수께서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위해서였다. 우리 역시 각자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예수께서 보여주신 것이다. 기도하지 않은 결과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보여준다. 그들은 예수를 위해 살려고 하는 인간적인 원함은 있었지만, 기도하지 않았기에 결정적인 순간에 시험에 들고 말았다.

‘배신’하지 않도록-

“예수님에 대한 배신이 없도록 깨어 기도해야 한다.” ‘배신’이라는 단어, 더구나 예수를 배신한다는 말은 기독교인에

게 매우 어색하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순교를 당하거나 십자가 밟기를 하는 시대도 아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닌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셨기에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신 것이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N분의 1이 아닙니다. 나 하나의 죄 크기입니다.” 담임목사님께서 설교 중 여러 번 강조한 말씀이다. 문득, 예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자주 들어왔던 말이 생각난다. “이 지구에 당신 혼자 산다고 할 때, 그래도 예수님은 당신을 찾아와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많은 성도가 조심스럽게 “네”라고 대답하면서 그분의 사랑에 감격한다. 그러나 나 혼자만으로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셔야 할 만큼 나의 죄값이 무한하다는 것에 대해 전율하지 않을 성도가 있을까?

십자가와 성찬식-

“이번 성찬식은 매우 특별했어요! 주일설교 주제, 사경회 말씀, 구역 공과 주제가 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이었고 그것을 기리는 성찬식이었으니까요.” 필자만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었다. 주변의 많은 성도가 이와 비슷한 고백을 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십자가라면, 기독교인은 십자가를 가장 많이 묵상해야 한다는 말씀이 삶을 돌아보게 한다. 이는 십자가 묵상 없는 삶, 십자가에서 떨어진 삶

은 무능력하고 죽은 삶이라는 것 아닌가! 영적으로 잠든 영국을 일깨웠다는 설교자 찰스 스펔전의 외침이 메아리친다. “강대상에서 예수의 이름이 울려 퍼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가 높이 들리고 매일같이 그의 보혈이 사역의 주제가 되게 하소서!”

서럽도록 하늘이 푸르른 날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죽으셨다.” 부활주일 성찬식이 있기 전에 이 말씀이 선포되었다. 떡과 잔을 받으며 여기저기 흐느끼는 소리가 들린다. 죄인을 위해 밥과 음료로 자신을 다 내어주신 예수님을 향한 눈물이다.

봄비는 여러 달의 가뭄으로 시달린 메마른 땅을 순식간에 바꿔놓았다. 죽은 것 같은 대지를 단번에 신록으로 물들이고 있다. 사경회를 통해 말씀은 우리 영혼에 파장을 주었다. 그러나 더 필요하다. 오랜 가뭄일수록 많은 양의 비가 필요하듯, 이 땅의 마른 뼈 같은 우리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대지를 뒤흔드는 하늘의 은혜가 필요하다.

“교회의 역사는 오늘날같이 서럽도록 하늘이 푸르른 날에 부흥의 단비를 내려주시던 기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흥의 소낙비가 내리기 전에는 항상,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간구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김남준, <거룩한 부흥>에서) ☆

취재: 신미숙 기자 pacific1009@naver.com

십자가사경회 후기

십자가 고난 뒤의 영광스러운 부활



양은선 장년3교구
zaq2751@naver.com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던 저는 한 번도 교회에 가서 예배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교회에 가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자유롭게 가고 싶은 곳을 다니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공원을 산책하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였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코로나가 지속되는 시간 동안 저는 하나님께 예전보다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구역 친구들과 말씀을 묵상하고 경건 서적을 보고 지체들과 줌으로 교제하고, 교회의 여러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코로나 시간이 육적으로는 힘든 시간이었지만 영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기도학교를 마친 후 시작한 릴레이기도와 기도벌드업 시간은 하나님을 좀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고민하면서 말씀을 청취하고 기도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을 갖기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유익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요즘 말씀을 묵상한 후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찬양을 부를 때 감동이 되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목사님의 말씀이 매 순간 가슴에 와닿아 때로는 사랑의 하

나눔으로 찾아오시고, 때로는 선택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연약한 저의 모습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보게 하시고, 때로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셔서 저의 삶을 돌이켜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예배의 감격에 빠지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십자가사경회를 통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이시지만 사람으로서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가장 간절함과 완전한 복종을 의미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고백은 하나님 앞에 일체의 비겁함이나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그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인간으로서 주님의 처분에 자신을 맡기고, 완전한 복종을 바라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늘 고초를 당하셨고, 늘 기도하던 생애였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는 십자가의 고난을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었고, 홀로 지셔야 하는 고난이었기에 온 마음을 다해 땀이 땅에 떨어지는 땀방울같이 되실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힘을 소진하셨을 때 천사가 와서 기도하시는 예수님께 힘을 주셨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잠이 들었습니다. 기도하신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셔서 잠든 제자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가엾게 여기셔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

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간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해야 할 그 시간에 기도하지 못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고 새벽 닭 울 때 생각이 나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도 지금 똑같이 들려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께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왜 저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나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순간 제 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인 저를 위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한 주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목이 메어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울림은 지금도 눈물겹도록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를 질 사명이 있었고, 누구도 그 사명을 대신해 줄 수 없었던 것처럼 저에게도 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육신의 연약함, 군 선교를 하면서 감당해야 하는 수많은 일들이 저에게 십자가였습니다. 때론 힘들어서 외면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어차피 내가 져야 할 십자가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살고 싶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이 계시기에, 십자가의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

교회학교회심집회 후기

여호와께 돌아가자



장세연(소년부 6학년)

저는 모태 신앙으로서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고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들었던 터라 잘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다닌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심집회를 통해 많은 것을 느끼고 변화된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집회 때에는 김민성 전도사님께서 우리가 양과 같이 눈이 어두워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고집만 세다고 하셨는데 그게 저의 모습 같았습니다. 내가 어떤 길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말을 듣지 않았던 예전의 저를 회개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집회 시에는 박철웅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시고, 살가죽이 뜯기는 채찍을 맞으시면서도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으며 자신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를 짊어 지시기 위해 희생하셨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래는 내가 지옥에 가야 할 운명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자신의 목숨을 바쳐 가장 잔인한 죽음으로 돌아가셨는데 나는 아무런 생각 없이 교회에 다니며 찬양팀조차 하기 싫다고 불평했던 나를 회개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이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게 되었고 감사와 회개의 눈물로 기도



하였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함께 불렀던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의 가사가 내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 돌아설지라도 예수님은 계속 날 기다리시고 변함없이 사랑해주고 계셨음을 가슴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에너지 삼아 찬양팀에도 열성적으로 임하고 경건생활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배 시에도 전처럼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매주 새로운 예수님을 만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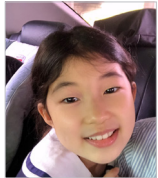
김호유(유년부 2학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 일을 믿지 않고 즐겁게 죄를 짓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는 우리도 죄를 가지고 태어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요.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제 안에 있는 죄에 대하여 깊이 회개하고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복음의 씨앗이 되어 세상에 구원의 기쁨을 알리고 싶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음의 씨앗이 심겨질 줄 주님이 원하시니까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

처럼 회심은 마음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죄를 향해 달려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인생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제 마음속 의자에 예수님만이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매일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닮고 싶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기를 약속합니다. ☆

안유나(초등부 4학년)



처음에 좀 늦게 도착해서 맨 뒤에서 앉아 있었는데 목사님이 잘 안 보여서 불편했지만 말씀에 집중하고 잘 들었다. 교회로 올 때는 너무 졸렸는데 오고 나니 말씀 듣기에 빠져서 졸린 느낌이 싹 사라졌다. 그

래서 말씀에 더 잘 집중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저녁을 먹을 때 아는 친구들이 많아서 편히 잘 먹었다. 마지막 저녁 집회 때에는 앞에 앉아서 더 말씀에 집중했다.

말씀이 끝나고 회개기도 시간에 초등부 목사님이 오셔서 같이 기도를 해주셨는데 가슴이 울컥하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못 박혔을 때 그 기분과 비슷하게 무섭고 슬픈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회개기도를 할 때 엄마에게 버릇 없게 대한 일, 동생 유승이와 싸운 일을 회개했다. 그렇지만 조금 지나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기분, 그 축복하고 기쁜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드리는 기도를 드렸다. 앞으로 매일성경도 빠지지 않고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엄마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동생과 사이 좋게 지내야겠다. 내년 회심집회에서는 더 큰 회심의 은혜를 받고 싶다. 예수님! 부활을 축하해요. ☆

청년부회심집회 후기

먼저 깨트려 저야 하는 것은 나였다



회심 집회를 정말 많이 기대했다. 그만큼 기도로 준비했는데, 사실 돌이켜 보면 그 이유가 내 회심에 관한 기대보다도 현재 섬기고 있는 순원들의 회심에 대한 기대가 컸던 것 같다. 순장으로서 섬김을 하다 보면, 정말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많이 깨닫는다. 인간적인 많은 노력을 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들인다고 해도, 그 영혼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며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간절했다. 특히 순원들과 관계적으로 가까워지고 그들의 삶을 알면 알수록 ‘이 순원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할 텐데...’라는 생각이 간절해졌다. 그들의 삶에 문제와 고통, 공허, 외로움 등을 보고 있다면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순원들의 회심이 간절했고 반드시 회심 집회로 나아올 수 있게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노력을 했다. 그런데 늘 그렇듯 현실은 내 기대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분명 올 수 있다고, 오겠다 약속했던 순원들로부터 연락이 두절되고 각자의 상황에 따라 참석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게 되면 마음이 그렇게 무너져 내릴 수가 없었다. 게다가 2시에 시작되는 집회도 늦을까 싶어 미리 와서 같이 점심을 먹고 준비하다가 들어가자고 약속했던 순원들조차 늦는 상황에 이르자 힘이 쭉쭉 빠지기 시작했다. 마음이 계속 좋지 않았다. 그나마 한 순원이 약속을 잊지 않고 왔다. 그런데 처음 나의 표정을 보고는 ‘화난 거 아니지?’라고 질문했을 때, 정말 아차 싶었다. 그리고 기분이 좋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해석했다. 내가 이렇

게 실망한 이유는 뭐지?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순원들이 반응해 주지 않아서? 계획대로 참석해 주지 않아서?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서? 또 착각했구나. 나는 그저 도구일 뿐,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그리고 정말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라면, 실망할 게 아니라 아파해야 하는데. 그리고 집회에 나가겠다고 나온 단 한 영혼으로도 기뻐해야 하는데.

집회 시간이 가까워졌고 감사하게 순원들이 한두 명 모여 들었다. 그리고 마음이 바뀌었다. 실망할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에게 마음을 다하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하자. 예배가 시작됐고 찬양, 그리고 성찬을 지나 말씀이 선포됐다. 바울의 첫 회심에 대한 말씀이었다.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다. 교회에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예배 출석을 잘하고 순모임에 잘 나온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경험이 없다면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다. 예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 순원들도 마찬가지였다.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 만나주셔야 한다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가난한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기 시작했고 나에게 없던 진심 어린 사랑이 흘러넘치는 것을 경험했다. 그리고 진정으로 모든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게 됐다.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다. 더 나아가



김준성 청년부
woom0519@gmail.com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영혼들도 생각났다. 이들 모두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며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불가한 일이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기도밖에 없었다. 그리고 나는 그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게 하셨다.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무능력한 죄인인지, 맡기신 양 떼들을 온전히 인도해낼 수 없는, 그저 용서받은 죄인이란 사실을 깨닫게 됐다.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다.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이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죄인인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만나주셨듯 우리 아이들을 만나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와 행복을 경험케 하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대하던 회심 집회가 끝이 났다. 순원들의 회심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했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회심을 경험했다. 물론 순원들이 은혜를 못 받았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다만, 먼저 깨트려 저야 하는 것은 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은 그 이후에 순원들을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졌다는 것이다.

2주 정도가 흐른 지금, 남들이 봤을 때 눈에 띄는 변화는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조금씩 이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있다. 내가 당장 그 열매를 보지 못할지라도 이들은 나에게 그저 맡겨진 양 떼들이기에, 참된 목자 되시며 이 양 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깊은 사랑과 생명으로 초대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

등대학교 후기

성경적 성 가치관을 배우다



김은빈(중등부)

이번에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성 바르게 이해하기’라는 주제의 등대학교 2기에 참여했다. 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그동안 성에 관해서 여러 가지의 의문점도 있었고 성경적으로는 또 어떻게 해야지 맞는 것인가 등을 알고 배우고 싶었다.

그래서 한번 신청을 하게 되었다. 되게 지루해 보이기도 하고 재미없어 보이기도 했다. 그런데 막상 다 끝난 지금 다시 되돌아 보면 너무 유익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다. 알지 못했던 것들도 많이 배웠고 성경적으로도 내가 몰랐었던 것들도 알게 돼서 너무 신기했다.

성에 관련한 많은 사실이 너무 신기했다. 성경적으로는 어떤 성이 올바른지도 배웠고 특히 강사님이 연애 중에 겪으신 얘기도 해주시고 여러 문장도 기억에 남는다. “찜은 서로를 위해 기도를 하는 시간이다”와 “내 첫 성은 나의 배우자를 위한 것이다” 등 명언 같은 문장들도 떠오른다.

이번 주제가 성이어서 되게 어색하고 듣기 거북한 주제라고 처음에는 생각이 들었지만 막상 들어보니 궁금점도 해결되고 너무나 좋았다. 많은 강의들도 있고 학교에서도 여러 번 성 관련 수업을 했지만 이번처럼 흥미가 가고 귀에 쏙쏙 박히기는 처음이었다. 엄청 열심히 필기도 하고 배고픈지도 모르고 열정적으로 했다. 닉 부이치치, 남자와 여자의 호르몬 차이, 테스트스테론과 에스트로젠, 생명의 소중함 등 진짜 너무 좋은 강의들을 들었었다.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지면서 아쉬웠다. 이런 기회가 흔치 않아서 더욱 재밌기도 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번에 배운 것들을 잘 되새기고 생각하면서 살고 싶고 노력할 것이다. 앞으로 배운 강의들과 내용들을 잘 기억해두어야겠다! 마지막으로, 이번 등대학교에서 많은 도움과 강의를 해주신 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너무 유익하고 좋았던 시간이었다! ☆



김예진(고등부1학년)

저는 초등부 시절 등불학교를 수강한 이후로는 교회에서 진행되는 다른 프로그램을 참여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2023년도 고등부에 올라오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더욱 깊이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등대학교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등대학교는 ‘하나님이 지으신 성 바르게 이해하기’라는 주제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중에서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시작하여 성격적 성 가치관의 이해 및 적용 등에 대한 내용과 조별 발표회로 총 4주 차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간을 통해서 기독교 세계관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성경적 성 가치관을 제대로 올바르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남녀는 동등하게 창조되었고 각자 고유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서로 돕는 배필로서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뿐만 아니라, 타락의 결과물인 동성애와 같은 부분을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받아들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같이 정말 다양한 부분을 함께 탐색하며 전도사님 및 외부 강사님의 의미 있는 강의를 들을 수 있어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남녀가 서로 사랑 안에서 연합을 이루어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드러나고, 믿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말씀이 깊게 와닿았습니다.

더불어 등대학교에서는 독후감과 설교 청취에 과제가 있었는데 이 또한 저에게 많은 배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존 파이퍼의 <남자와 여자 무엇이 다른가?>는 성경에서 말하는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의 진정한 의미에 대하여 다른 책으로, 저에게 성경이 말하는 남성과 여성의 의미를 간결하고 명쾌하게 보여 주었습니다. 이 책은 개개인 안에 있는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에 대해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깨우쳐 주었다면, 설교 청취 과제인 김남준 목사님의 가정을 세우는 원리에 대한 말씀은 제가 가정에 대한 올바른 관념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류가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라는 고백을 나누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이 온 인류 안에 아름다운 사랑의 연합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속하셨으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위계질서인 우열의 관계가 아닌, 남녀가 기능적인 질서는 있지만 대등한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사랑으로 부부로서 한 몸을 이루도록 만드신 것과 같이,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으면서 사랑받고 있다는 마음이 드는 사랑 즉, 살면서 계속해서 사랑의 아름다움을 발견해 나가는 그런 종류의 사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불어, 외롭고 긴 인생길을 홀로 가야 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것을 내적으로 끊임없이 이겨낼 수 있는 정신의 힘을 신앙 안에서 배양하며 살아야 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금번 등대학교 수강을 통하여, 다분히 성경에 어긋나는 많은 비성격적인 이론과 사상이 끊임없이 빔발치는 세상 속에서 성경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며 적용시켜서 올바른 분별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끝으로 등대학교에서 배운 전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올바르게 이해함을 통해 나의 삶에 접목시키고 한결같은 주님의 생각을 찬양하는 청지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5월 추천도서

응답받을 때까지 멈추지 말고

E. M. 바운즈 (임종원 역)/브니엘

바운즈에 의하면 기도는 무관심한 대상이나 시시한 게 아니다. 기도는 달콤해 보이나 매우 보잘것없는 어떤 특권도 아니다. 기도는 굉장히 커다란 특권이며, 기도의 효력은 아주 먼 곳까지 영향을 미친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를 게을리하는 사람 자체보다 훨씬 더 많은 상실을 초래한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단지 중간마다 끼워 넣는 삽화가 아니다. 오히려 모든 삶이 기도를 위한 준비이며 기도의 결과이다. 제대로 된 상태에서 기도는 신앙의 정수이다. 믿음은 단지 기도의 통로일 뿐이다. 믿음은 기도에 날개를 달아주어 재빨리 날아오를 수 있게 만든다. 기도는 믿음을 통해 거룩함이 살아 숨 쉬게 만드는 폐이다. 기도는 영성생활의 언어일 뿐만 아니라 영성생활의 본질을 이루는 동시에 참된 성격을 형성한다.



(출판사 리뷰)



교회 소식

농어촌아웃리치

- 날짜: 5월 27일(토)~5월 29일(월)
- 장소: 1교구(전북/부안) 격포중앙교회, 성산교회
2교구(충남/금산) 대산교회, 길곡교회
3교구(강원/삼척, 정선) 추동교회, 용산교회
4교구(경북/성주) 대황사랑교회, 남은교회
5교구(충북/괴산) 문법교회, 화산교회
6교구(전남/광양, 고흥) 신황중앙교회, 동강중앙교회
청년4국(강원/삼척) 역둔교회

유아세례 및 학습·세례·입교 예식 안내

- 유아세례: 5월 6일(토) 오후 4시
- 학습·세례·입교: 5월 7일(주일) 2부 예배시
- 장소: 본관 3층 예배실
- 문의: 김태영 목사, 박창일 집사
(유아세례 대상자는 오후 3시 40분까지 오시기 바랍니다)

5월 교회 주요 사역

- 6일(토) 유아세례식
- 7일(주일) 학습·세례·입교식
- 14일(주일) 아웃리치 전도특강
- 18일(목) 노숙자 섬김의 날
- 27일(토)~29일(월) 농어촌아웃리치
- 28일(주일) 성령강림주일, PCM현금

새가족

장년

서정국(58)	김용록(53)
김미인(65)	장현숙(53)
박재진(34)	이해조(81)
조선정(80)	정소영(80)
박기노(82)	심윤택(52)
하은혜(82)	김수경(75)
임등자(43)	송영식(57)
김수아(75)	황순옥(61)
강영대(80)	김옥희(57)
정소정(86)	홍지혜(89)

청년

박수진(96)	조영상(92)
백종오(92)	김평강(96)
엄미연(90)	OYABU SAKI(01)
김판수(92)	권재현(89)
이수빈(98)	한태범(94)
김향선(90)	

기도학교 후기

인생광야에서 기도자리 지키기



정수연 장년5교구
tresor1026@naver.com



2023년을 시작하며 기도의 단을 쌓아야겠다는 마음이 생겨 이번 기도학교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사춘기 자녀인 중3 아들과 초6 딸, 40대 중반을 넘어선 부부가 한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걱정이 앞선 것이 동기가 되었습니다. 저의 영혼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지만, 기도의 참된 유익은 실재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았고 응답에 대한 확신과 결과가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삶의 염려를 넘어서기 위해 기도학교에 등록했고 기도의 본질에 대해 말씀을 들으며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옮겨 가야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 정직한 언어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입술로 읊조리는 기도에 익숙했던 저에게 마음의 우물에서 기도를 길어 올려야 한다는 말씀이 깊은 울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저의 모습을 제대로 봐야 했습니다. 죄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찾는 것은 큰 모순이었고 하나님은 그런 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저를 보게 하셨습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교만과 탐욕,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 마음이 죄에서 자유해지며 특히 자녀에 대해 집착하고 있던 욕심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고 엄마의 의지대로 되지 않는다고 미워했던 마음들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늘 응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절함을 담아 크게 부르짖으며 떼쓰는 모습으로 매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응답이 늦어지거나 외면되었다고 느끼면 하나님에 대해 빠지고 원망하며 절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마음의 중심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것이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니

며 기도를 통해 인생은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 속에서 살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삶 속의 어려움과 문제들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 상황을 바라보는 저의 마음과 시선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물을 수 있게 되었고 즉각적인 응답을 기대하고 조르는 것이 아니라 문제들 속에서 언제나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동행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삶의 문제로 늘 고민하던 기도의 제목들은 공동체와 교회, 나라와 민족, 세계로 확대되어 그동안 기도의 시각이 얼마나 얇고 좁았는지를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에 대해 함께 슬퍼할 수 있었고 치료하시고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친히 찾아와 주시고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도록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는 시간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며 마음만 있다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구별된 시간 등 삶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저 자신을 위해 분주하고 바쁘게 살았던 지난 시간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질서를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이 되는 순종을 위해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저를 향해 집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저의 삶도 하나님께 집중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지거나 좌절할 수 있지만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묵상하고 사랑을 기억하며 일어설 힘을 주시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은 광야의 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안식처인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기도하는 자리를 지켜봅니다. ☆

곰곰이 생각

혼자 믿는 것이 좋지 않은 이유

글·그림: 나동훈
gomgom2@designzip.co.kr

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십니까? (창 2:18)



하나님의 창조가 미완성이기 때문이 아니라, 창조주의 사랑을 나누고 함께 기뻐할수록 아담의 삶이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왜 혼자 믿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구원이 미완성이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함께 기뻐할수록 당신의 삶이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롬 10:15)

2월, 금요기도회 말씀을 들으며

새공과 소개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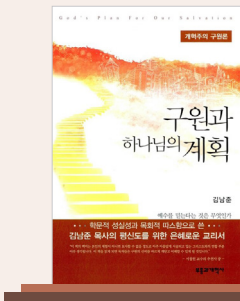
이번에 새롭게 구역 공과로 공부할 책은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책은 2003년 고난주간 십자가 사경회에서 시작하여 주일 설교로 이어진 설교입니다. 이 시리즈는 총 12편의 설교로 되어 있으며, 열린교회에서 교리반 수료와 구역장, 교사가 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들어야 할 설교 시리즈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짧은 복음의 진술을 듣고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후에 참된 신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짧은 지식만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형식적인 신자로 남을 가능성이 큼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는 자신이 받은 구원의 의미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합니다.

이 책은 천지창조, 죄 아래 있게 된 인간의 모습,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 과정, 부활과 영광스러운 천국에서의 생활 등 구원의 전 과정을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의 틀 안에서 정리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영혼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고, 감각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이 책은 구원의 의미와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 줄 것입니다. 특별히 구원론이라고 하는 중요한 교리를 모든 성도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와 적절한 예를 사용하면서 소개해 주고 있기에 두꺼운 책이지만 어렵지 않게 읽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자인 담임목사님께서도 이 책을 수십 번 정독하셨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책은 우리가 참된 신자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구원의 내용과 천국의 소망을 가르쳐 주기에 충분한 책입니다. 이번 구역 공과를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신앙으로 굳게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목양센터) ☆



포토에세이

사진: 김범무(장년6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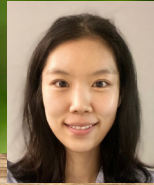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요한복음 15장 4절

만남 품은 열린교인

나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권화영 장년4교구
acekwonhy@naver.com



저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회심하기 전 저에게 있어 예배는 제 삶의 일부로 여겨왔던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호기심이 많았던 저는 성경에 대해 다소 황당한 의문을 많이 품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견고함이 없었기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이해하기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에 대한 숙고 없이 성년이 되어 대학에 진학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확실히 믿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데 왜 내 죄의 비참함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지 않는 것일가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어졌습니다.

2007년 어느 봄날 저는 <고통의 문제>, <순전한 기독교>를 읽으면서 C.S.루이스를 처음 만났습니다. 루이스의 통찰을 통해 인간의 본성의 대한 해부와 기독교의 이성, 합리성의 가치에 대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통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도 현재도 아니고 죄를 지우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회개와 피다”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었던 저는 은혜로 서지 못했고 그러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의 비참함에 슬피 울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를 공동의 죄책으로만 여기며 살아왔던 저에게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공동의 죄책을 이용하지 말라는 루이스의 말은 마치 내가 십자가에 못을 박고 숨어있는 죄인의 모습처럼 느껴져서 괴로웠습니다. 회개라는 비밀의 열쇠가 들어가니 제 마음은 은혜의 밭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꾸준히 신앙생활을 이어오다가 결혼 이후, 학창 시절부터 김남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자란 남편을 따라 자연스럽게 열린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2016년에 결혼을 하고 2018년 11월 첫째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저의 신앙의 터닝 포인트는 이 지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는 3000:1이라는 확률로 발생하는 희귀질환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실에 저는 크게 낙심하였고 매일을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 질환에 관련한 정보를 찾으려 애썼고 생판 모르는 외국의 연구교수에게까지 연락을 취하며 그들이 주는 위로와 작은 희망에 의지하며 버텼습니다. 그러나 완치를 위한 것은 현재 아무 것도 없었기에 저의 불안은 갈수록 심각해졌습니다. 친정어머니께서 오실 때면 집 앞 작은 예배당에 앉아 하염없이 울다가 그냥 돌아오기 일쑤였습니다. 찬 공기를 들이마시고 깊이 한숨을 내쉬며 찻잔 갈라진 입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던 말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로부터 많이 배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 삶과 연결짓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은혜에서 미끄러져 생기 없는 상태로 지내오다 2019년 9월 담임목사님 시리즈 설교 <염려에 관하여>를 듣게 되었습니다. “염려는 자기사랑으로부터 온 것이다.” 내가 내 아이를 사랑해서 염려하는 것이 자기사랑인가? 그러나 저는 시리즈 설교를 다 듣고 난 뒤에야 너무나 당연하고 가장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아이를 사랑한 것과 염려라는 감정에 지배당하며 살아온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는 한계를 깨닫고, 내 힘으로 살 수 없음을 알게 된다. 그리고 은혜에서 미끄러져 죄로 다가가게 하였던 교만을 회개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워하게 된다”는 담임목사님의 말씀, 염려가 지속되면 그것도 죄이며 그것은 그릇된 자기사랑이라고 하신 말씀은 제게 주신 정확한 처방이었습니다. 염려라는 안개가 조금씩 걷히고 나니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보였습니다. 아, 나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배우게 된 지식을 기반으로 관계의 틀을 새롭게 정립하게 되었는데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말씀묵상과 기도생활을 꾸준히 하면서 시간의 십일조 생활이 정착되었습니다. 예배가 제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담임목사님의 지성에 기쁨을 부어주셔서 목사님의 탁월하고 명쾌한 설교와 책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맞보니 하늘의 상급을 차곡차곡 쌓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둘째는 교회 공동체와의 관계입니다. 개인신앙의 틀만 있었던 과거와 달리 성도의 교제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가는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저희 구역 구역장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제하는 기쁨을 기도, 묵상 나눔, 구역공과, 기독교 서적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구역원들의 은혜가 일상에서도 잘 보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구역원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삶과 말씀을 연결 짓고 그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로 연합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셋째는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열린교회에서 배운 정확한 교리와 하나님께서 무한히 공급해주시는 은혜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세상이 주는 유익은 근본적으로 무익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세상 감각에 둔감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홀이라는 마음을 주셨고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용기도 주셨습니다. 아이의 아픔을 통해 만난 자모들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교회가 되어주기를 소망하며 육체의 아픔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아픔임을 전하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소통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을 누리길 기도하며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선이시고 의(義)이십니다. 또 다른 풍량이 제 삶을 에워싸도 능히 이길 힘을 주실 것이며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며 주의 도를 묵묵히 꿋꿋이 나아가고 싶습니다. ☆



교회를 섬기는 이들

담임목사	김남준
시무장로	김남근 김기현 박정갑 금성철 황철호 김대영 박기준 김용연 성경열 김춘경 이영춘
은퇴장로	임두순 이대환 김희철 박찬동 김원호
부목사	김성구 박재현 김동기 이성도 류요한 박철웅 최성기 명성인 권경철 김태영
협동목사	정창욱 김성진
강도사	김수민
전도사	곽혜정 조희숙 정경아 최선미 김현희 김미영 박숙현 양승희 이지연 이월순 정명원 김민성 김민정 김진산 최영광
교육전도사	이두호 이해선 조일권

파송선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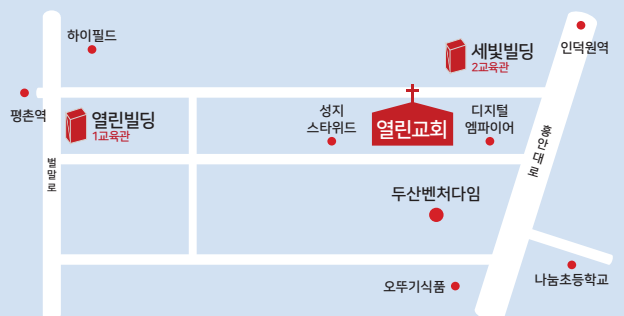
A국: 4 units, B국: 1 unit, C국: 1 unit
말레이시아: 양선우 & 전혜림
에스와티니: 황아론 & 장진영 / 박현철 & 박상유
인도네시아: 신동진 & 정지현
국내 디아스포라: 정진학 & 손원항

예배시간 안내

	구분	시간
주일오전예배	1부	오전 8시 (본관 3층 예배실)
	2부	오전 10시 (본관 3층 예배실)
	3부	오후 12시 (본관 3층 예배실)
	4부	오후 2시 (본관 3층 예배실)
*주일오후예배		오후 4시 10분 (본관 3층 예배실)
교회학교	영아부	오전 10시 / 12시 (별관 1층 교육실2)
	유아부	오전 10시 / 12시 (세빛빌딩 2층 교육실1)
	유치부	오전 10시 / 12시 (세빛빌딩 3층 교육실2)
	유년부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2층 교육실3)
	초등부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2층 교육실4)
	소년부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1층 교육실2)
	중등부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1층 교육실1)
	고등부	오전 10시 / 12시 (세빛빌딩 4층 교육실3)
	사랑부	오전 10시 (별관 1층 교육실1)
새벽기도	1부	오전 5시 (별관 1층 교육실2)
	2부	오전 6시 (본관 3층 예배실)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본관 3층 예배실)
수요섬김기도		오전 10시 30분 (본관 1층)
금요기도		오후 8시 (교구별 지정장소)
*사랑부 토요교실		오전 10시 (별관 1층 교육실2)
소망부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본관 1층 예배실)
중국인예배 中国人礼拜		오전 11시 30분 (세빛빌딩 5층 중국실) 上午 11时 30分 (世光大厦 5层 中文室)
화요전도기도회		오전 10시 (본관 1층 예배실)

(* 코로나19 감염위험의 최소화를 위해 시행하지 않고 있는 모임)

찾아오시는 길



※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4번출구)에서 버스 환승하거나
평촌역(3번출구)에서 20분 정도 걸어오시면 됩니다



에피그람, 한 문장 / 죽은 자에게 사는 것을 이야기하게 하라. 살아있는 자의 수만 마디 말보다 가치 있을 것이다.

